



2022 EMERiCs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중동부유럽 권역

폴란드에서 직접 경험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김민주

2022년 연초부터 러시아는 벨라루스 및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서 벨라루스와의 합동 훈련을 명분으로 병력을 집결시켰고, 이후에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강행하여 현재까지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항전으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 폴란드에 직업상의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필자는 폴란드로 피신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폴란드 시민사회와 정부 및 고등교육 기관, 그리고 기업의 대처를 몸소 경험할 수 있었으며, 그 바탕이 되는 문화를 알아 볼 수 있었다.

폴란드 시민의 자발적 모금 활동

폴란드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실로 놀라웠다. 단순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내 이웃을 넘보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다음 침공은 자신이 당할 수도 있고 유럽 전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며,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 하며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찾는 바버샵에서 서비스를 마친 뒤

바버가 모금통을 보이며 기부를 독려하고, 마트에서는 계산대 옆에 빈 카트를 두어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바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쿠팡과 비슷한 폴란드의 온라인 쇼핑몰인 알레그로(Allegro)에서는 온라인 결제를 통해 바로 기부할 수 있도록 모금 시스템을 갖춘 것을 볼 수 있다.

폴란드 정부 및 학교 등 기관에서의 지원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민간 부분에 못지 않게 적극적이다. 우선 본국을 떠나 폴란드에 오게 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하여 비자 및 모든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불편 없이 폴란드에 입국하여 머물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공공 교통 요금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거주지를 아직 구하지 못한 난민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해주고 있다. 대학교 등 고등 교육시설에서는 전쟁으로 학습이 중단된 학생들의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고국에서와 같은 학과의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난민 중 희망자는 학생 신분에도 상관없이 학교 기숙사에 머물 수 있도록 방을 제공하고 있다.

폴란드 내 글로벌 기업의 조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가 SWIFT를 포함하여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규제를 느낄 수 있다. 가장 놀라운 점으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윈도우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러시아에 거주하며 근무하는 직원의 직접적인 접속 권한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부당하게 정직 및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닌, 종전과는 다르게 우회적 방법으로 중간에 한 사람을 더 거치는 방식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별 것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업차원에서 반인륜적 범죄 전쟁에 대한 규제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전쟁에 대한 폴란드인의 대처를 보면서 이들의 문화에 뿌리 깊게 남겨져 있는 주변 강대국의 침략으로 생긴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깊은 상처와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폴란드어로는 ‘오시비엥침’이라 불리고 대개 우리에게서는 아우슈비츠로 잘 알려진,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

자행된 강제수용소와 이전에 게토지역 구분을 위한 벽이 세워졌던 거리에 특별한 보도 블록을 설치하여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로 인한 일반 시민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폴란드는, 현재 이웃국가에서 벌어진 일 또한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난민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폴란드의 역사에서 비롯된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